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Vol. 51 | 2022 Autumn

SEES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Contents

PART 1. SEES HEADLINE — 01

· 『신임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서정훈 교수

PART 2. SEES PEOPLE — 04

동문칼럼

· 『미국 Woods Hole 해양 연구소의
Senior Scientist, 권영오 박사님을 만나다.』
| 권영오 박사

학생칼럼

· 학부생 졸업후기
·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 교환학생 후기
· MT 후기

PART 3. SEES CULTURE — 14

시로 읽는 지구환경 | 이창복 명예교수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 정해진 교수

학생회 행사 & 공지사항

SEES EVENT

PART 4. SEES INSIDE — 18

SEES News

· 교수님 동정
· 동문소식
· 학부소식
· 기타소식

4단계 BK21사업 소식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지질환경연구소
· 해양연구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학사일정

HEADLINE

신임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서정훈 교수



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구환경과학부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22학년 9월 가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요한 연구 및 교육 주제는 지각 상부에 존재하는 전략 광물자원의 지질학 및 탐사 연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지구시스템전공(99학번)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의 Department of Earth Science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과정동안 구리 및 몰리브덴의 주요한 자원인 반암형(porphry-style deposit) 구리-몰리브덴-금 광상의 변질양상 및 유체포유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반암형 광상의 금속 이동-침전 과정 및 이와 관련한 유체 진화에 대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조-부교수로 근무하며 국내외 광물자원의 형성과 탐사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 한반도 일대 주요한 광상 및 탐사지(텅스텐, 몰리브덴, 구리, 금, 아연, 리튬 등)들에 대한 지질학 및 지구화학 연구, (2) 뉴질랜드 및 일본 일대 해저에 분포하는 열수 광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3) 북미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일대에 분포하는 구리, 금, 주석 광상들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되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후배들에게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구-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교수님의 전공 연구분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 소개해주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및 한반도 핵심원료자원 광물탐사: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외교갈등 및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우주항공,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광전지,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국내 산업 소재의 핵심적인 원료광물의 공급 사이클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자원확보와 아울러 국내 및 한반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원료자원 광물들의 분포 및 그 성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 극한환경(남극 대륙 및 연안지역, 심해저, 행성)의 광물자원 연구: 저는 그동안 광물탐사에서 수행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피하기 어려운 극한지역에 대한 광물자원 연구-탐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극지방-극지연안 광상 탐사, 심해저 광상, 그리고 달과 화성 등 행성의 광물자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질학-광상학 연구 및 탐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4. 학부시절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학부시절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 동아리인 메아리에서 활동하며 공연 및 악기 연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학과(당시 지구환경과학계)의 여러 학생 동아리 경험 또한 많이 하였습니다. 학부시절 저는 서울대학교 공동 기기원에서 ICP-OES 분석 기기의 학생 보조원으로 시료 전처리 및 비커 세척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 이후로 제가 지구화학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학부시절 18동에 있던 지구환경과학부(당시 지구환경과학계)가 25-1동으로 옮겨올 당시에 기자재 운반 등을 보조하였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5.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인가요?

제 석사학위 중 캘리포니아 야외답사 중 큰 사고가 발생하여 후배를 잃고, 이상목 교수님께서 큰 사고 후유증을 겪게 된 일이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6. 연구 외의 시간,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쉬는 날에는 주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합니다.

7. 연구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음악을 들으면서 장시간 걷거나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8. 교수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교수를 장래희망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를 계속하여 연구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하고 있었고,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9. 만약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이후로는 계속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고 생각만을 해 왔기에 교수가 되지 않으면 연구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았다면, 지하자원 관련 탐사-개발기업에서 일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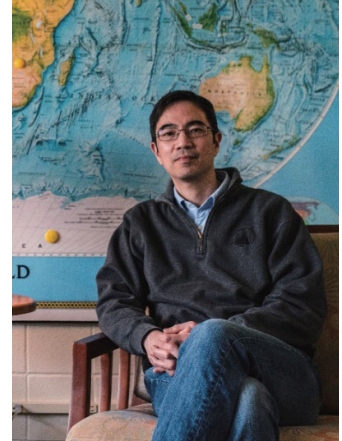
10.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주신다면..?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000000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분들! "꾸준"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업 및 취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문칼럼

미국 Woods Hole 해양 연구소의 Senior Scientist, 권영오 박사님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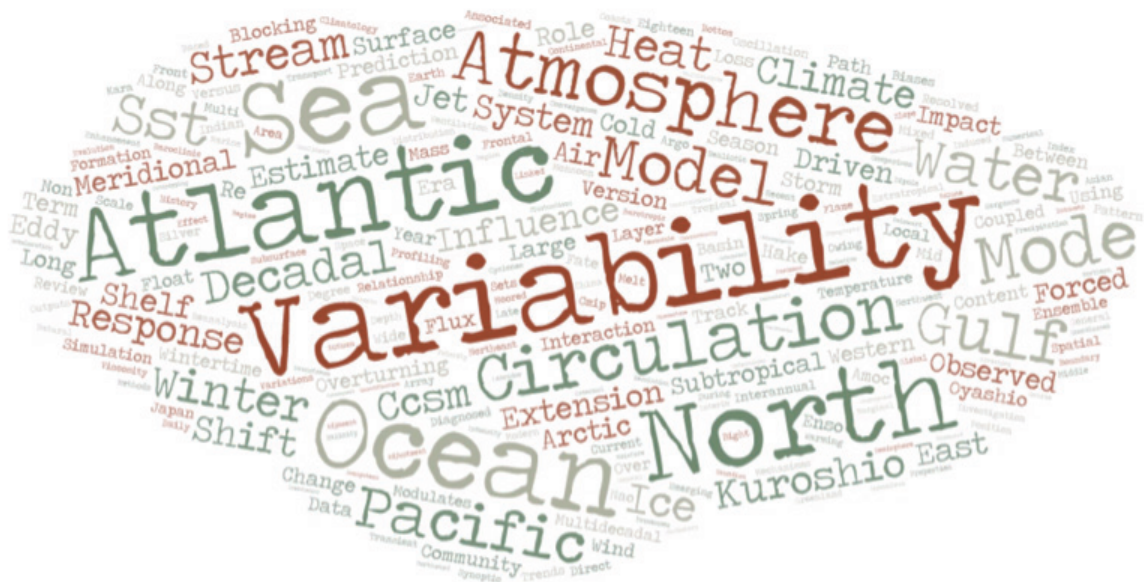
권영오 박사 | WATS 인터뷰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박사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지금까지 쓴 60개 이상의 논문 제목을 모은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에 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고, 해양과 대기 순환, 대서양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Young-Oh Kwon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면, 한 마디로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기후 변동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라고 할 수 있고, 규모는 공간적으로 basin-scale, 시간적으로는 수년에서 수십년입니다. 그걸 공부하기 위해 해양 쪽에서는 해양 순환이나 수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즉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들어보았을 해양 컨베이어벨트나, Gulf Stream, Kuroshio, mode water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기에서는 제트기류, 폭풍, blocking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대기 순환이 해양 순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거꾸로 해양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하는 연구의 많은 부분이 후자고요. 해양과 대기는 특성이 상당히 다른데, 대기의 주기성은 일주일 정도로 빨리빨리 변해요. 그리고 대기는 무슨 변화가 있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해양은 훨씬 오래 가지요. 그래서 해양이 대기의 기후에 대한 기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양과 대기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후 변동성이 연안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수산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중위도 해양-대기 상호관계인데, 중위도의 그런 기작들과 해빙이 녹는 등의 북극의 변화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기상예보를 하듯이 지구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예측과 예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작들에 대한 연구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Q2. 학부생 시절 진로 탐색을 위해 특별히 해보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진로탐색이요?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요. 옛날엔 지구환경과학부가 있지 않고 해양학과가 따로 있었는데, 해양학과에 입학하고 재밌게 놀다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고생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던 경험은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연구실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해양 순환에 관한 연구를 체험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평소에 연구가 할 만한 일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실 체험 경험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래 대학원을 가고 싶은 쪽이었는데, 마음을 굳히는 계기였습니다.

Q3. 세부 전공으로 물리해양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해양학에는 크게 6개 정도의 세부분야가 있습니다. 물리해양학, 생물해양학, 화학해양학, 지질해양학, 해양공학, 해양정책 중 생물, 화학, 지질해양학 수업을 들었는데,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물리해양학 만큼은 재미가 있었고, 물리해양학은 해수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해양학의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느끼며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Q4. 해외 박사과정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령 연구 분야의 국내와 해외의 인프라 차이 같은 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A: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밖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주변에 MIT와 같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오 나도 저런 데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분들을 거의 동경하는 마음으로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으로 동해 연구를 했었는데, 박사과정에 합격한 두 대학교 중 한 곳은 동해 연구를 계속 이어서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 워싱턴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Q5. 외국 대학원과 우즈홀 연구소에서 느낀 특징, 어려움, 국내 연구환경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해외 대학원 진학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가장 큰 어려움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었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즉 주위에 있는 연구원들을 보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임은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문과 연구라는 공통점이 꽤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물리, 화학에 비해 학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는데, 그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서로 친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Q6.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거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경험 혹은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도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해보고 해외를 갈지 안 갈지, 어디로 갈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연구실 체험을 했었을 때 말았던 업무가 종이에 인쇄된 자료를 컴퓨터로 옮겨 치는 전산화 작업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일이었는데도 연구실 체험이 어렵고 두려워할 경험도 아니었고,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죠. 그래서 꼭 한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롭고 많은 것들을 도전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Q7. 해당 전공에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스스로 잘 선택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그러한 것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사실 매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으며) 와이프와 딸이 지금 하는 일에 후회한 적 없냐고 종종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해요. 조금 운 좋게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감이 있지만요.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과도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재밌는 주제가 많고, 그 중에서 어떤 연구를 할지 배부른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원칙을 적용하면 후회되는 선택은 없을 거예요. 저는 새로운 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항상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것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원하는 선택들을 한 것 같아요.

Q8.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택은 무엇인가요?

A: 글썄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정답은 제 와이프와 결혼한 것? (웃음) 일에 관련해서 잘 했다고 생각한 것을 딱 하나 고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할 때 공통적으로 원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것, 새로운 것들을 주로 택했어요. 포닥 때 연구소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중 하나였던 (현재 일하는) WHOI에서는 워싱턴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원래 하던 연구를 계속하자고 했고, 다른 하나였던 미국 대기과학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는 기후모델을 이용한 대기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안 해본 것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본 것을 하는 게 위험하기는 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네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택하자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새로운 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Q9. 대학원에서 연구하신 북대서양 및 동해의 대규모 순환과 수질 변동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 주제와 다른,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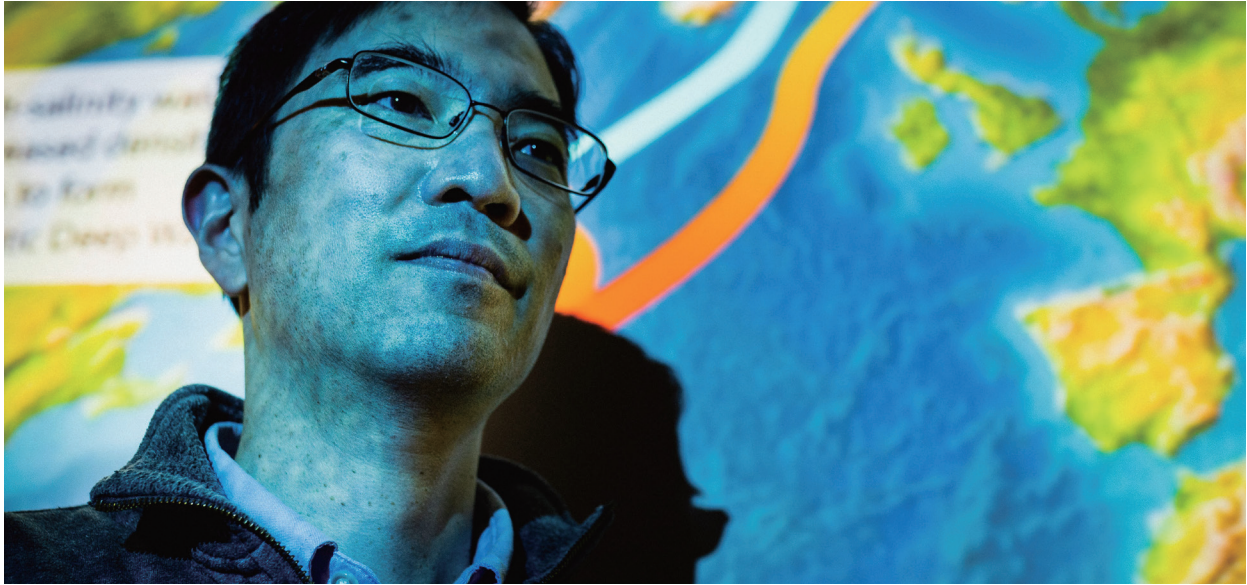
A: 제가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때, 동해 연구를 했어요. 동해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저희는 동해를 natural laboratory라고 해요. 동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북대서양처럼 대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담겨 있어요. 북대서양의 북쪽에서는 겨울이 되면 찬 바람 때문에 열을 잃어 무거운 수괴가 가라앉아 전 세계의 해수 순환 컨베이어 벨트의 시작이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기작들이 작지만 동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대서양의 Gulf Stream처럼 동해에도 유사한 해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대서양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몇 백 년이 걸리지만, 동해에서는 몇 십 년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계속하면 동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양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는 동해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에 와서는 대서양 쪽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비슷한 면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대기-해양 상호작용, 특히 중위도에서 해양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계기로는 제가 박사과정 때 굉장히 영향력이 큰 논문이 하나 출판되었어요. 서유럽의 기후가 미국 동부보다 훨씬 온화한데, 멕시코 만류가 열을 끌고 올라가서 서유럽이 온화하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정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해양은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전부 대기가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해양이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해양 쪽에서 제대로 연구하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학자들은 효과적으로 반박을 못했어요. 그때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해양 쪽에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치기에서 해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Q10. 마지막으로, 현재 몸 담고 계시는 물리해양학이 마주한 과업은 무엇인가요?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그런 과업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학부생들은 어떤 자세로 학업에 임해야 할까요?

A: 너무 심각한 질문이네요. (웃음) 글썄요.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해양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물리해양학 쪽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양 순환이 변하고, 그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해양이 열과 탄소의 엄청난 저장고인데, 이런 것들이 해양 순환에 의해 저장 능력이 변하고, 이것이 다시 기후 변화의 속도와 양상을 변하게 합니다. 해양과 대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에너지를 가져가는 열수송이 북극의 해빙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해양 순환과 기후 변화가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세로 학업에 임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한 번씩 '이거 하는 게 맞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연구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서 공부하세요.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답이 없거나 바보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발짝씩 나가시면 될 겁니다.



Profile

1996	Seoul National University, Oceanography
1998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Oceanography
2003	University of Washington, Physical Oceanography
2003.12. – 2006.10.	Postdoctoral Scientist, Climate Analysis Section/Climate and Global Dynamics Division,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006.03. – 2006.10.	Visiting Scientist, Climate Analysis Section/Climate and Global Dynamics Division,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006.11. – 2010.10.	Assistant Scientist, Dept. of Physical Oceanography, WHOI
2010.10. – 2018.11.	Associate Scientist, Dept. of Physical Oceanography, WHOI (Tenured since May 2014)
2018.12. – 현재	Senior Scientist, Dept. of Physical Oceanography, WHOI

학생칼럼 _ 학부생 졸업후기

가득차고도 여전히 아쉬운 듯한 학부 생활을 보내는 글



임지현 | 학사과정 17학번

며칠 전, 거의 3년 만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학부 3학년이던 때와 지금의 결과를 비교하니 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N에서 S로요. 잘은 모르지만 그 둘을 나누는 대표적인 특징은 '상상력'과 '현실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코로나 상황과 취업 준비를 거치며 점점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을 느끼고 있었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예전의 나도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지만 이 글의 소재를 생각하다 보니 확실히 학부생일 때의 저는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던 호기심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 반의 시간을 천천히 돌려 보면 일을 벌려 놓고 후회했던 기억, 하고 보니 기회 잡길 잘했다며 뿌듯했던 기억 등으로 가득 차 있네요. 저는 이 글을 통해 오랜만에 그 시간들을 회상하려 합니다. 혹시 추억이 겹치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함께 그 시간에 빠져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제 글을 통해 학부 생활 동안의 꿈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제 글은 언제나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알아서 잘 따라와 주세요.)

학부 초반 지존에서 시간 때우거나 시먹 등 사소하지만 즐거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것은 역시 동아리네요. 지환부 신입생의 절반은 거쳐 간다는 춤 동아리 '씨댄'이요. 아마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쏟았기 때문에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이걸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5곡을 한 적도 있고, 공연 다음날이 트리플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뒤편이를 간 적도 있고, 축제나 행사 무대에 오를 적도 있구요.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재미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습이 즐거웠고 학부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연 한달 전부터의 중간 피드백, 최종 피드백, 리허설은 그 긴장감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자리임과 동시에 다른 팀의 모습도 볼 수 있기에 오히려 본 공연보다 더 기다려졌어요. 그래도 가장 떨리는 건 본 공연입니다. 공연날 아침부터 방명록을 꾸미고, 조명에 맞춰 리허설하며 '공연 시간아 오지 마 아니 그냥 빨리 와'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다 공연이 시작되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인가?'하며 많이 달라진 친구들의 무대를 구경하기도 하구요, 내 차례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후다닥 끝내고 내려옵니다. 공연 후엔 사진을 찍는데 이때 찍은 사진들이 인생샷이 많아요, 무대 화장의 힘이랄까.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뒤편이를 가서 연습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한 학기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우는 친구도 있었구요ㅎ...) 총 6번의 정기 공연을 돌아보는 지금의 저는 '그래, 나도 어떤 것에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었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학부 생활하면 빼먹을 수 없는 활동이었기도 하구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공부도 했답니다...! 당시엔 방향인지 호기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게 많아 생명과학부 부전공도 했고, 뇌마음행동이라는 연계전공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1학년 말의 저에게 '아니야! 생과부 전공은 듣지마!'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때로 돌아가 저 말을 듣더라도 저는 또 수업을 들을 것 같긴 합니다. 성적이야 어쨌든 재밌긴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3학년부터는 뇌과학이 궁금해 다짜고짜 뇌마음행동 수업을 듣고 관련 연구실에서 두번의 인턴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 두번째 연구인 쥐의 뇌파 데이터 분석 연구가 제 진로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 연구가 너무 재밌었고 적성에도 잘 맞아 전공 수업인 개별 연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구요. 이때 대학원 진학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 연구가 졸업 즈음이었다면 저는 지금 대학원에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렇진 않아서 저는 뇌인지과학 관련 전공 수업을 계속 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궁금하다고 그냥 배우는 게 일을 벌려 놓은 건 아닌가하는 고민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쌓여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지환부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미생물해양학 연구실에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예상도



못하게 졸업 논문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부의 중후반, 저는 관심 있는 수업을 찾아 들으며 그동안 끼놓았던 성적을 올렸고 점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갔습니다.

학부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다시 큰 도전을 했습니다. 졸업을 마루고 미국으로의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학년을 마치고 한 학기 휴학 후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었지만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교환학생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직전 갔다 온 해외 봉사 겸 유럽 여행으로 만족해야 하나 아쉬워하던 8학기 때에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가게 되면 한 학기 추가(즉, 10학기)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이미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렇게 (이 글을 쓰기 딱 1년 전의) 저는 졸업 전 마지막 경험을 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100% 쓰고자 학업과 여행 모두 잡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같은 수업의 현지 친구들과 스터디하고 발표도 했고 수업 중엔 절대 하지 않던 질문도 하며 전 과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저의 한계를 넓혀가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학기 앞뒤로나 연휴가 긴 경우엔 LA나 시카고, 뉴욕, 라스베이거스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정말 अच्छ고 재미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같은 교환학생이던 멕시코 룸메이트와 프랑스 친구와 함께 free food를 찾아 다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미국 대학 생활 체험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외 시간이 널널했기에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혹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저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꼈는데 이때의 생활을 통해 한숨 돌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무엇보다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갈지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행이나 경험의 면도 있지만 여유를 느끼며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모두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장을 받기 며칠 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5년 반이라는 시간을 2장에 요약하려 하니 아무래도 언급하지 못해 아까운 소재들도 많네요. 위에 잠깐 스쳐 말한 체코 해외 봉사, 유럽 여행을 비롯한 앞으로 많이 가지 못할 여행, 또 금지막한 사건들에 밀려버린 자잘한 학부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들 등 한정된 지면에 다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추억을 잊고 지냈는데, 이 글을 통해 다시 되짚어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된 소중한 경험이 많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 때의 그 열정을 되찾아 N이었던 본래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끔은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때 당시의 저의 가치관이 기억이 나네요, 하고 싶은 거 후회하지 말고 다 하자! 지금의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학생칼럼 _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자연대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후기

옥진희 박사 | 석박통합과정 16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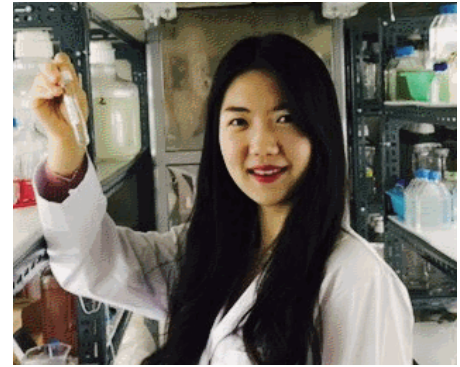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76회 후기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옥진희입니다. 이번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플랑크톤 연구실을 설립하시고, 우리나라 플랑크톤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신 서울대학교 심재형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발굴한 해양 외편모류의 속명을 심 교수님의 존함을 따 심이엘라(Shimiella)라고 명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제 학위논문에도 수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 교수님의 제자이자 저의 은사이신 정해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 두시는 교수님께서 제가 찾아볼 때면 언제나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기쁨이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저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학위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학문적으로 보다 폭넓은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종성 교수님, 황청연 교수님, 나한나 교수님, 포항공과대학교 이기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위과정 동안 많은 가르침을 준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 선배들과, 그동안 함께 연구하며 많이 배려해 준 후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매 순간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거제도에서 자란 저는 등하교 하며 늘 바다를 접했기에 바다의 표면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저는 2016년부터 지구환경과학부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에서 미지의 바닷속 생물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주로 연구한 대상은 지구의 산소 생성에 50%나 기여하는 독립영양 및 혼합영양 플랑크톤입니다. 이들은 높은 밀도로 성장하여 대번성을 이루기도 하는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들의 분포와 대번성 형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하였습니다. 본 학위논문은 학문적으로는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어민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해양생태계를 연구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해양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정해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학부 전공인 철학과 사회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철학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해양생태학은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사회학은 ‘인간 사회’의 구조, 기능,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이고, 해양생태학은 ‘해양생태계’의 구조, 기능,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인 만큼, 대상은 달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한 해양 독립영양 및 혼합영양 플랑크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 몇 대에 걸친 연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대기로부터 해당 플랑크톤의 행동과 생존 전략 등이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우리 인간, 더 나아가 모든 생물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인간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해양생태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더 발전시켜 논문이나 책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학부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준비하여 제출한 논문에 대해 저널로부터 거절 메일을 받고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불안감은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지도교수님께서 “Philosophy를 공부했으니 Doctor만 하면 진정한 Doctor of philosophy(Ph.D.)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한 것이 저처럼 학부와 다른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역시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생칼럼 _ 교환학생 후기

5학년에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이 있다?!

김규연 | 학사과정 16학번



16년도에 지구환경과학부에 입학해,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2021년 여름의 저는 이미 초과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제 계획을 알렸을 때,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가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졸업해서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 졸업하고 취업하는 와중에 혼자만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출국 전까지도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제 선택은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던 저에게 일종의 현실도피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 빨리 졸업하고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놀러가서 돈이나 펍핑 쓰고 온 것'은 제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해외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 가장 특별했고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수 중인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 수업들을 듣기 위해 환경 관련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순서대로 덴마크의 코펜하겐대학교, 스웨덴의 웁살라대학교, 네덜란드의 레이던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지망이었던 웁살라대학교에 합격했고, 21년 2학기에 본격적인 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릿빠릿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버린 탓도 있겠지만, 유럽의 일처리는 지나치게 느린 편이었습니다. 입학허가서 수령, 기숙사 신청, 거주허가증 승인 등과 같은 중요한 업무들이 각각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가 되면서 출국 2주 전까지도 마음을 졸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공식 개강일인 1월 17일보다 약 일주일 앞선 1월 11일에 출국해, 약 6개월 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웁살라에서 대부분의 교환학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인 Flogsta에서는 12명의 학생들이 한 층에 살고 주방을 공유하게 됩니다. 저는 MBTI가 극단적인 I로 시작하는 터라, 처음 만난 한국인과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들에 둘러싸여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를 지칭하는 '피카(Fika)'를 하다보니 어느새 가까워졌고, 서로 귀국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모두들 눈물을 찔끔 흘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웁살라에는 저처럼 한국에서 파견 온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혼자 너무 많아서 처음엔 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아줄까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교환학생 기간 내내 자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다 같이 모여 명절날의 대가족처럼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환학생까지 가서 한국인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타지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을 만나서 훨씬 쉽게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고 제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을 하며 보내서 정작 웁살라에 머물렀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총 26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제가 졸업학점을 거의 다 이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1월이 가기 전에 하나의 온라인 수업만을 남기고 모두 드랍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의 학교 생활과 수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덕분에 일정의 제약 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만나서 싸인을 받고 사진도 찍었고, 북극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노르웨이의 스텔바르 제도를 방문해서, 설산을 하이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지갑 사정 속에서 언제나 가장 저렴한 숙소에서 최소한의 수면을 취하고, 김치가 없는 빈약한 식사를 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때는 통장잔고가 부족하다며 오랫동안 심문을 받았고, 모로코에서는 가이드가 저를 버리고 떠나 덩그러니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남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 지연과 결항을 겪었고, 한번은 하루에 비행기를 4번 갈아타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힘든 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귀국한지 2달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과감히 교환학생에 지원한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제 식견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교환학생을 포기했다면 제 대학생활은 훨씬 더 밋밋하게 막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련 없이 이 학교를 떠날 수 있고, 제 경험들을 추진력 삼아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이겨내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환학생 신청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학교에서 돈까지 쥐어주며 떠밀어주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칼럼 _ MT 후기

지환부 MT 후기

김소정 | 학사과정 20학번

2022년이 되며 수업들이 대면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종 페스티벌과 학교 축제 등 문화행사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생활의 대부분이 정상화 되어가는 듯했다. 타 학과에서도 MT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환부 학생회 내에서는 부랴부랴 총 MT를 준비하게 되었다. 여름이 되며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탓에 당초 40명가량이 참여할 계획이었던 MT에는 30명만 오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고, 20학번과 21학번이 많이 참가하지 않아서 더욱 아쉬웠다.

즐거운 MT를 위해 MT를 떠나기 전, MT 책들과 함께 여러 게임을 준비했다. 식사를 기준으로 크게 식전 게임과 식후 게임을 나눠 준비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조금 삐거덕거렸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자연대에서 진행된 과학봉사단에서 했던 게임들과 비슷한 게임이 많았던지라 유사 과봉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농담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게임을 준비한 덕택에 과학봉사단 활동보다 훨씬 재밌었다. 기본적인 몸으로 말해요부터, 병뚜껑 날리기,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등, 조별로 게임을 진행하며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 무작위적으로 조를 형성했기에 학번,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였던 '지환부는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라는 말을 코로나 학번인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지난 학기부터 다양한 학부 행사를 시작하고, MT에 가보니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번에 관계없이 한데 어울려 노는 모습과 서로 챙겨주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MT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학부 행사를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시로 읽는 지구환경

바다의 미풍

스테판 말라르메 (1842~1898)

육체는 슬프다, 오!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노라.
달아나리라, 저 멀리 달아나리라! 새들이 낚선 거품과
하늘 사이에서 취해 있음을 나는 느낀다.
아무것도, 눈에 비쳐진 오래된 정원도
바닷물에 적셔진 이 마음을 붙잡지는 못하리.
오, 밤이여! 흰 빛으로 남아있는 텅 빈 종이를 비치는
내 램프의 황량한 불빛도, 그리고 어린아이 젓먹이는
젊은 아내도 이 마음 붙잡지 못하리.
나는 떠나련다! 돛대를 흔드는 기선이여,
이국의 자연을 향해 닻을 올려라!

가혹한 희망으로 비탄에 잠긴 어느 권태는
아직도 손수건의 그 마지막 작별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돛대들, 폭풍을 불러들이는 그것들은 아마도
돛대도 없이, 돛대도 없이, 비옥한 섬도 없이 길 잃은
난파선 위에 바람이 기울게 만든 그 돛대들인가, ...
그러나, 오 내 가슴이여, 뱃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라.

프랑스의 대표적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바다의 미풍'을 읽어 봅니다.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불니다. 바닷가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낚선 하늘과 바다를 향해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현실에 절망하고 지쳤을 때에는. 이렇게 한번 들떠버린 마음은 어느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또한 폭풍의 가능성이 있고, 폭풍 속에 난파하는 배와 뱃사람들의 절망에 찬 한숨이 있습니다.

이 시는 머리로 이해하기엔 아주 난해하지만, 그 첫 구절은 바로 가슴에 다가옵니다. "육체는 슬프다, 오!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노라." 우리 슬픔의 많은 부분은 그 근원을 육체의 유한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정신적 노력도 끝내 소용없게 될 때, 우리는 떠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떠나지요? 폭풍과 난파가 기다리는 미지의 바다로?

〈2012년 6월, 이창복 명예교수〉

정해진 교수님의 수업유머

차 엄청 막힘

세계지리 썰렁퀴즈 하나
인도네시아에서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은?
이 곳은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차가
엄청 막힌다고 하네요~~
답은 밀림입니다. 얼마나 차가 밀리면 지명을
밀림이라고 했을까요^^ - hj

한 말씀 더 얼마나 차가 밀리면 밀림이라고
지었을까요^^

소집

어제 황소가 씹씹거리며 전화를 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왜 우리집에서 모여야만 하나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고지서를 한 장을 보여주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 hj

한 말씀 더 소~집~.. 소~외양간^^



임윤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밴 클라이번 (Van Cliburn)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네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나는 산에 들어가 피아노만 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했대네요...
그 말을 전해들은 경상도 친구가 한마디 하네요
"니 (관중을) 와 피아노"^^ - hj

한 말씀 더 우승을 엄청 축하합니다^^



내맘대로 지구생물의 3대 발명

지구생물의 발명품중 3대 발명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광합성. 남세균이 발명. 이산화탄소를 포도당
으로 합성. 연료 개발.
두 번째는 질소고정. 역시 남세균이 발명. 질소가스를 암
모니아로 전환. 단백질 원료 개발.
세 번째는 한글. 세종대왕께서 발명. 거의 모든 소리를
기록과 재생 가능^^ - hj

한 말씀 더 진짜 내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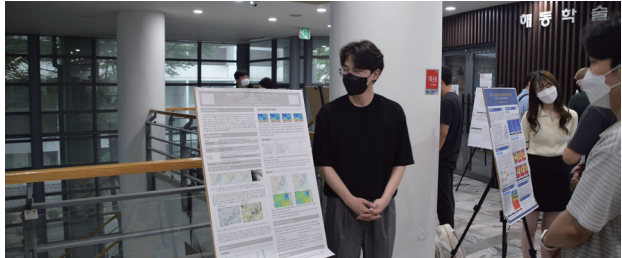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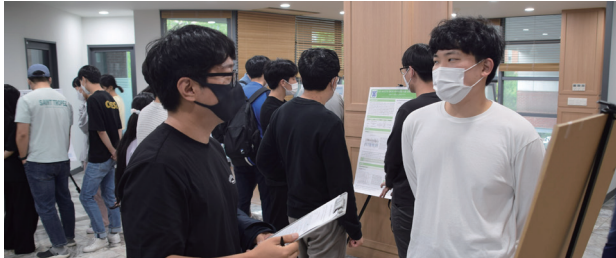
학생회 공지

2022년 2학기 학생회 행사	9월	• 물천X지환 일일호프, 자연대 축제 내 부스 운영, 지구환경과학부 체육대회
	10월	• 제23대 지구환경과학부 학생회장 선거
	11월	• 수시 면접 응원
	12월	• 2023학년도 지환부 신입생 OT

※ 행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hoto Zone

학부생 졸업논문 포스터 전시



2022년 제15회 전국지질과학과 연합필드캠프



최우수·우수 박사학위논문상 시상



2022년 상반기 교외교육



SEES NEWS

교수님 동정

· 수상소식

· 홍조근정훈장 수상



임규호 교수님께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장기간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시는 교수님에 대해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입니다.

·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수상



박정우 교수님께서 2022년 제2차 자연과학대학 연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연구상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교수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우주선 교수님께서 2022년도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은 전달력이 뛰어난 훌륭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교수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 2022 만해대상 수상



이상묵 교수님께서 만해대상 실천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2일 제26회 만해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등 3개분야에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으로 앞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라마, 김대중 대통령 등이 수상했습니다.

·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이성근 교수님께서 현무암질 용융체의 원자 구조와 그 구조-화학적 진화 과정을 극한환경에서 규명하여 제67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기초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은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국내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입니다.

· 교수임용/승진/선출소식



서정훈 교수님께서 2022년 9월 1일자로 지구환경과학부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에너지/광물자원 지질학입니다.



이현우 교수님께서 2022년 7월 1일 자(임기: 2022.07.01~2024.06.30)로 한국암석학회 학술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남성현 교수님께서 2022년 1월 1일 자(임기: 2022.01.01~2023.12.31)로 한국해양학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영희 교수님께서 2022년 9월 14일자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UNESCO-IGCP 지질재해분야 과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 기타소식



김영희 교수님께서 우리 학부 이강근, 이상묵, 정해명, 허영숙, 박정우, 우주선, 이현우 교수님, 부경대 김영재 교수님과 함께 2022년 9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지구심부-지표 상호작용 연구를 주제로 하는 SRC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해진 교수님께서 해양생태학 교과서인 '재미있는 해양생태학(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비생물적 물질과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생물들의 변화를 연구하는 해양생태학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 초청강연



김종성 교수

2022. 6. 16. 7th China - ROK maritime cooperation conference

The Yellow Sea Ecosystem Study: Issues, Monitoring efforts, Key findings, Activities, & Future cooperation (국외 초청강연)

2022. 7. 5. CKC 2022 Carbon Neutrality 2030 Summit

Development of living shoreline technology based on blue carbon science toward climate change adaptation (국외 초청강연)

2022. 7. 21. 블루카본 국제포럼

Blue Carbon in Korea (국외 초청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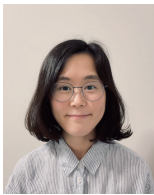


손석우 교수

2022. 5. 2. 한국기상학회 불학술대회

Synoptic Weather Patterns of Warm-Season Heavy Rainfall Events in South Korea

동문소식



빙하/고기후 연구실의 변은지 박사(2016년 2월 석사졸업, 지도교수 안진호)가 2022년 9월 1일자로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빙하/고기후 연구실의 양지웅 박사(2019년 2월 박사졸업, 지도교수 안진호)가 2022년 10월 1일자로 프랑스 베르사유대학교 기후환경연구소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정동주 박사(2006년 2월 석사 졸업, 지도교수: 김규범)가 2022년 3월 1일자로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김종선 박사(2012년 2월 석사 졸업, 지도교수: 김규범)가 School of Earth, Environmental, and Marine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미국 UCLA 대학 Earth, Planetary & Space Sciences 학과의 문슬기 교수(2007년 2월 석사 졸업, 지도교수: 허영숙)가 정년보장을 받았습니다.



대류/도시기상연구실의 유영희 박사(2012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백종진)가 2022년 9월 1일자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부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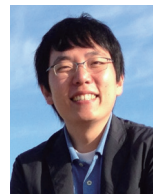
해양환경예측연구실의 탁용진 박사(2020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조양기)가 2022년 9월 1일자로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기화학모델링연구실의 권형안 박사(2019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박록진)가 2022년 4월 1일자로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위성기상실험실의 송환진 박사(2015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손병주)가 2022년 9월 1일자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천문대기과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수치예보실험실의 최석진 박사(2010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이동규)가 2022년 9월 1일자로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해양환경예측연구실의 박재형 박사(2018년 8월 졸업, 지도교수: 남성현)가 2022년 9월 1일자로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정세진 박사(2020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명)가 2022년 한국암석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선암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양퇴적학연구실의 김도형 박사(2022년 2월 졸업, 지도교수: 최경식)가 "Decoupling natural and man-made impacts on the morphologic and sedimentologic changes in the tidal flats, Saemangeum area, west coast of Korea: Implications for benthic ecosystem stability"를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과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부소식

• 행정실 직원 신규 발령



김효정 사무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지구환경과학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학부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5-1동 3층 학부 행정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길소연 선생님께서 7월 1일자로 지구환경과학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담당업무는 SNU 10-10 프로젝트 예산관리와 학부 홍보, 전문연구요원 관리 등입니다. 25-1동 3층 학부 행정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



생태바이오에너지융합연구실의 옥진희 박사(2022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정해진)가 2022학년도 2학기 자연과학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구환경과학부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지구물질과학연구실의 이아침 박사(2022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이성근)가 2022학년도 2학기 지구환경과학부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광물학회 학술발표회 우수 구두 발표상



지구물질과학연구실의 이아침 박사(2022년 8월 졸업, 지도교수: 이성근)가 "고압 환경에서 붕소를 함유한 함수 알루미늄규산염 용융체의 물의 함량에 따른 원자 구조 변화: 행성 내부 마그마의 붕소 동위 원소 조성에 관한 미시적 고찰"을 주제로 한국광물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구물질과학연구실의 이서영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이성근)이 "메가바 압력 하 마그네슘 규산염 용융체의 구조와 무질서도 규명: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을 주제로 한국광물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암석학회 학술발표회 우수발표상



화산학/휘발성성분연구실의 이원희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이현우)이 "동해 심흥택 해산에서 발견된 젊은 현암암의 반정 예비 연구"의 내용으로 한국암석학회 우수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김도현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이 "High P-T deformation experiments of chlorite peridotite and microstructures of chlorite in subduction zones"를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체구조물리학연구실의 김준하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정해명)이 "Lattice preferred orientation of amphibole in amphibolites in Gapyeong and implications for seismic anisotropy"를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양암석지구화학연구실의 박규승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박정우)이 "저어론 U-Pb 연대측정을 통한 울진 리튬 광화대 형성 시기 연구"를 주제로 한국암석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날씨/기후역학연구실의 백승운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손석우)이 2022년 4월 22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기후분과)에서 "MJO diversity in CMIP6 models"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날씨/기후역학연구실의 전예준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손석우)이 2022년 4월 22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기후분과)에서 "A potential driver of Eurasian winter cooling"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날씨/기후역학연구실의 홍동찬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손석우)이 2022년 4월 22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분과)에서 "성층권 동서평균장 넷징에 따른 지표 영향: 2018년 북반구 성층권 돌연승온 사례"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보분석응용연구실의 김은태 석박통합과정생(지도교수: 김정훈)이 2022년 4월 22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에서 "통합모델 기반의 항공기 착빙 예측 알고리즘 최적화 및 예측성 평가"를 주제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보분석응용연구실의 신예원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김정훈)이 2022년 4월 22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분과)에서 "미국 알래스카 산악 파 난류의 메커니즘 및 대기경계층 물리 모수화 과정에 대한 민감도"를 주제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우수학생 포스터상



환경해양생지화학연구실의 Xiaoyu Chen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규범)이 "Behaviors of dissolved trace elements associated with humic dissolved organic matters in coastal seawater"를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우수학생 포스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측연구실의 최연 박사과정생(지도교수: 남성현)이 "Overall warming and east-west contrasting salinity changes in Southern Indian Ocean (SIO) Antarctic Bottom Water (AABW) between 1990s and 2010s"를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우수학생 포스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우수강의조교(작은스승B) 수상



조은별 박사과정생이 2022학년도 1학기 우수강의조교(작은스승B)로 선발되었습니다. (교과목명: 지구시스템과학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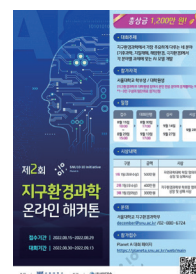
기타소식

• [서울대-KIST] 기후환경분야 연구협력 협정서 체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후환경연구소는 상호간의 기후환경분야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를 목적으로 협약식(MOU)을 2022년 8월 31일(수)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상호기후환경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R&D를 통해 선도적 학연 교육 및 연구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PlanetA 지구환경과학 온라인 해커톤



지구환경과학부는 「SNU 10-10 프로젝트」 우수 학문분야로 선정되어, AI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구환경 문제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구환경과학 글로벌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인 'PLANET A 프로젝트'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지구환경과학 글로벌 데이터허브를 통해 인공지능을 통한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제 2회 Planet A 온라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33회 CMG 국제학술대회 개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Geophysics in the world of Modern Mathema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의 주제로 33개국의 168명이라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조강연으로 우리 서울대학교의 김광열 교수님과 Keilis-Borok Medal의 초대 수상자인 프린스턴대 Frederik Simons 교수가 맡아주었고, 21일에는 기초과학 및 수학의 지속발전에 대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자연대 유재준 학장님께서 지구과학, 물리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패널들과의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수학,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한국과 서울대학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 2022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및 홋카이도대학교 구성원의 연구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상호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2022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고, 주제는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A regional focus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입니다.

• 2022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공감과학 캠프



계산과학연합전공에서는 장애/비장애학생들의 계산과학 협동 체험을 통해 계산과학에 대한 흥미와 역량을 고취시켜 장애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미래의 꿈을 지원하고자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22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공감과학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4단계 BK21사업 소식

우수연구활동 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2022년 상반기 동안 SCI(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출판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연구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 13명(석사: 1명, 박사 12명)에게 연구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4단계 BK21사업 2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지구환경과학분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교육 및 연구부문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은 KIRD 이러닝 사이트(<http://cyber.kird.re.kr>)를 통해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 검토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1회 의무수강 하여야 합니다.

신진연구인력 현황

우리 교육연구단은 여러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진 연구인력 현황

이름	직급	전공	임용기간
이정현	연수연구원	해양생태학	2020. 11. 01. - 2022. 10. 31.
Hongda Hao	연수연구원	지구화학	2022. 01. 01. - 2022. 12. 31.
옥진희	연수연구원	생물해양학	2022. 09. 01. - 2023. 08. 31.

연구소 NEWS

| 대기환경연구소 |

●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김만해	선임연구원	2022.03.01.~2023.02.28.
김수현	선임연구원	2022.06.01.~2023.05.31.
강민지	선임연구원	2022.06.01.~2023.05.31.
강의종	연수연구원	2022.03.01.~2023.02.28.
진한결	연수연구원	2022.03.01.~2023.02.28.
Zhao Yang	연수연구원	2022.07.01.~2022.09.30.
조형호	연구원	2022.03.01.~2023.02.28.
김희애	연구원	2022.06.01.~2022.08.31.
유영은	연구원	2022.05.01.~2023.04.30.
김주섭	보조연구원	2022.04.15.~2022.08.31.
정인채	보조연구원	2022.05.01.~2023.02.28.
김수진	보조연구원	2022.06.01.~2022.08.31.
김종진	보조연구원	2022.06.20.~2022.08.26.
정춘희	보조연구원	2022.03.15.~2023.03.14.

| 지질환경연구소 |

○ 연구원 임용

성명	직책	임용기간
권덕인	연구교수	2021.03.01.-2024.02.29.
이유수	연구조교수	2022.01.01.-2022.12.31.
김원영	책임연구원	2022.01.01.-2022.12.31.
이성순	책임연구원	2021.10.01.-2022.08.31.
이인성	책임연구원	2022.03.01.-2023.02.28.
황지환	책임연구원	2021.09.01.-2022.08.31.
박재현	선임연구원	2022.07.01.-2023.06.30.
권진중	선임연구원	2022.06.01.-2023.05.31.
정세진	선임연구원	2022.03.01.-2023.02.28.
천화성	선임연구원	2022.01.01.-2022.12.31.
이상현	선임연구원	2022.01.01.-2022.12.31.
박 용	선임연구원	2021.09.01.-2022.08.31.
전원탁	선임연구원	2021.09.01.-2022.08.31.
임호빈	연수연구원	2022.03.01.-2023.02.28.
Cristiano Padalino Galeazzi	연수연구원	2022.03.01.-2023.02.28.
김재연	연수연구원	2022.03.01.-2023.02.28.
Shujia Li	연수연구원	2022.02.15.-2023.02.12.
송정훈	연수연구원	2022.01.01.-2022.12.31.
이화주	연수연구원	2022.01.01.-2022.08.31.
이정재	연수연구원	2021.05.15.-2023.04.30.
김준하	연구원	2022.03.01.-2023.02.28.
Kajal Kumari	연구원	2022.07.14.-2022.08.31.
이철민	보조연구원	2022.01.01.-2022.12.31.
황정화	보조연구원	2022.06.15.-2023.06.14.
박재영	보조연구원	2022.03.01.-2023.02.28.
박송희	보조연구원	2022.01.01.-2022.12.31.
김지은	보조연구원	2022.01.01.-2022.12.31.
조리라	보조연구원	2021.08.01.-2022.07.31.
이재석	보조연구원	2022.04.01.-2022.07.26.
서미정	보조연구원	2022.05.01.-2023.04.30.

| 해양연구소 |

○ 연구원 임용

이름	직책	임용기간
책임연구원	나태희	2022.06.01.-2023.05.31.
연수연구원	엄지원	2022.06.01.-2023.05.31.
연수연구원	김봉관	2022.09.01.-2023.08.31.
연수연구원	서호중	2022.09.01.-2023.08.31.
연구원	박성준	2022.05.01.-2023.04.30.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일정

| 학술대회 일정 |

● 2022년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년 10월 19일(목) ~ 10월 21일(금)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학회 홈페이지 www.kome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년 11월 2일(수) ~ 11월 4일(금)
장소 |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학회 홈페이지 ksocan.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및 대한지질학회 제 77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 2022년 10월 28일(금)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자세한 사항은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 www.gskore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7회 전재규 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 25-1동 국제회의실 (예정)

| 세미나 일정 |

● 2022학년도 2학기 SEES COLLOQUIUM 일정

- 담당교수 : 황청연 교수님
- 일시 : 매주 수요일 12시
- 장소 : 25-1동 1층 국제회의실

일정	연사	소속
9월	7 옥진희 박사, 이아침 박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4 박성훈 대표	다음커리어
	21 김기태 박사	극지연구소 저온신소재연구단
	28 서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0월	5 임경재 박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2 홍종욱 해양정책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9 권영상 교수	University of Memphis
11월	2 이연주 박사	IBS 기초과학연구원
	9 변은지 교수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16 황청연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3 이태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30 장세현 교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2월	7 김윤곤 변호사	GC녹십자 법률서비스팀

○ 2022학년도 2학기 대기과학세미나 일정

• 일시 : 화요일 오후 4시

• 장소 : 501동 504호

날짜	연사명	소속	비고
9월	6일	임규호 명예교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20일	차은정 박사	국립기상과학원
	27일	오석근 연구교수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10월	4일	정옥교 교수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11일	최 정 연구교수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25일	권민호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월	1일	권형안 교수	수원대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5일	송인선 교수	연세대 대기과학과
	22일	정재인 연구교수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29일	송효종 교수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 2022학년도 2학기 지구사랑세미나 일정

• 일시 :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25-1동 304호

날짜	연사명	소속	비고
9월	23일	김영재 교수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30일	한장미 박사	University of Houston
10월	14일	김경자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월	4일	박정재 교수	서울대 지리학과
	18일	정해명 교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12월	9일	장이랑 교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16일	권효상, 김수환 학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학사일정 _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9월

9. 1.(목)	• 제2학기 시작, 개강
9. 1.(목) ~ 9. 7.(수)	•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 2023년도 제1학기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9. 8.(목) 9. 14.(수)	• 동계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9. 28.(수)	• 수업일수 1/4선
9. 30.(금) ~ 10. 7.(금)	• 2023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신청

10월

10. 15.(토)	• 개교기념일
10. 24.(월) ~ 10. 28.(금)	• 2023학년도 제1학기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 설계전공 신청
10. 25.(화)	•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수업일수 2/4선
10. 6.(목), 10. 28.(금)	• 제2학기 자율학습일

11월

11. 1.(화) ~ 11. 8.(화)	•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11. 21.(월)	• 수업일수 3/4선
11. 28.(월) ~ 12. 16.(금)	• 2023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12월

12. 12.(월) ~ 1. 13.(금)	• 2023학년도 제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12. 14.(수)	• 제2학기 종강
12. 15.(목) ~ 12. 21.(수)	• 제2학기 보강기간
12. 15.(목) ~ 2. 28.(화)	• 2023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신청
12. 22.(목)	• 동계휴가 시작, 동계 계절수업 개강
12. 28.(수)	• 제2학기 성적제출 마감

1월

1. 9.(월)	•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마감(1/2선)
1. 9.(월) ~ 1. 13.(금)	• 2023학년도 전과 신청
1. 25.(수)	• 동계 계절수업 종강
1. 31.(화) ~ 2. 7.(화)	• 202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08:30~16:00)

2월

2. 1.(수)	• 동계 계절수업 성적제출 마감
2. 6.(월) ~ 2. 10.(금)	• 2023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신입생 등록
2. 7.(화) ~ 2. 9.(목)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등록
2. 20.(월) ~ 2. 24.(금)	• 202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
2. 24.(금)	• 전기 학위수여식
2. 28.(화)	• 제2학기 종료, 동계휴가 종료

SEES

NEWSLETTER

Vol. 51 | 2022 Autumn



School of Earth &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 2022년 9월 발행인 | 지구환경과학부장 편집인 | 지구환경과학부 뉴스레터 담당자

발행처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우 08826) Tel. 02-880-6724 Fax. 02-871-3269 E-mail. se1227@snu.ac.kr <http://sees.snu.ac.kr>

디자인 | 꿈인디자인 E-mail. design@kkumin.co.kr